

호주에서 온 레베카. "제 직업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싶었어요. 제 직업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사람에 대한 신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2025-4-7.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상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베카입니다. 모두가 저를 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시드니 남쪽에 있는 호주의 원 출신입니다. 저는 여섯 자녀 중 장남입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법을 배우는 데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가톨릭 신자입니다. 확실히 그것은 우리 삶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많은 취미를 가졌습니다. 저는 십 대 때처럼 판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예술과 독서,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기타를 치는 법을 스스로 배웠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움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호스피탈리티 대학을 발견했습니다. 장학금이 있어서 정말 관심이 있었어요.

시드니에 있는 동안 머물 곳이 필요했어요. 오푸스데이와 접촉하면서 알게 됐어요. 호텔업에 들어가는 게 좀 걱정이었어요. 일부 업계는 독성이 강할 수 있거든요. 하느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호텔업에서 일하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오푸스데이의 중심에서 일하면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다른 여자애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자신과 온 삶을 하느님께 바쳤어요. 제게 매력적인 일이었어요.

봉사 정신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제가 살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싶었어요. 제 직업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싶어서 일합니다. 그것은 각 사람에 대한 신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dev.opusdei.org/ko-kr/
article/hojueseon-on-rebeka-je-jigeobeun-
saramdeuleul-dolboneun-geosibnida/](https://dev.opusdei.org/ko-kr/article/hojueseon-on-rebeka-je-jigeobeun-saramdeuleul-dolboneun-geosibnida/)
(2025-8-5.)